



3면

"1석 줄어든 전북 9석 없다"

# 전주매일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음 10월 30일) 제34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쿠팡 상생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박대준 쿠팡(주) 대표, 백두현 온라인 판매업 대표, 오성현 전북청년경제인협회 명예회장, 이동원 전북스타업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전북 중소기업·소상공 국내·외 판로 지원·물류산업 발전 등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도-쿠팡,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도내 중기·소상공 국내외 판로 확대, 전자상거래 활동 교류·협력 추진  
협약 앞서 도 기업지원사업 설명·쿠팡 대만 진출 설명... 기업인들 '호응'

쿠팡(주)과 전북도는 11일 전북도청에서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며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쿠팡(주) 박대준 대표, 백두현 온라인 판매업 대표, 오성현 전북청년경제인협회 명예회장, 이동원 전북스타업연합회 회장, 쿠팡 입점기업 등 도내 온라인 마케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기업인 60여명이 함께해 의

미를 더했다. 이날 업무협약(MOU)에 앞서 '전라북도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쿠팡(주)의 '대만 진출 설명'이 진행돼 참여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끌었다. 도는 쿠팡(주)과 업무협약(MOU) 이후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전자상거래 활동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력,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및 지역특산물 개발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력,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상품

들이 쿠팡(주)과의 협력으로 전국을 넘어 대만까지 알려져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시작될 전북특별자치도!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여정에 쿠팡(주)이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속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 입점 확대, 온라인 전용 상품 개발 등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익산 다이로움 시골여행 '각광'

올 익산시 농촌 체험 휴양마을 방문객 6만7492명  
파티플래너 등 인적자원 육성·33개 여행상품 개발

익산시 농촌관광 '다이로움 시골여행'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6만7,492명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 농촌 복합도시인 익산시는 도·농 교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농촌관광 기반체계를 구축해왔다.

우선 시는 농촌관광의 핵심인 인적자원 육성에 주력했다.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지도사 90명과 파티플래너 60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13명 등을 모집해 양성했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를 교육하는 일련의 과정은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이 화합하는 장이 됐다.

또 농촌 역사·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알찬 체험을 위해 98개소에 대한 자원조사를 거쳐 33개 여

행상품이 개발됐다. 시는 숙박과 식사, 체험, 안내와 관련한 서비스 품질개선 지침을 개발해 관련 물품과 함께 배부하고, 숙박시설을 재단장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창의적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익산교육지원청,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상호협력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이로움 시골여행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불꽃놀이하기 좋은 마을 △수련회 하기 좋은 마을 △농산물 수확체험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리뷰쓰고 여행가자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행 일정과 소요 경비, 예약까지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북 의생명산업 발전 초석

'전북미래의료포럼' 출범... 디지털병원 발전방향 등 논의

전북도가 '생명산업 육성' 및 '도민 행복 증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의생명산업 거점화 및 전북의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모색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권덕철 전북대 석좌교수(前 복지부 장관), 서울대 의과대학 강대희교수,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前 복지부 1차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기원 교수, 이규택 전북TP원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미래의료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관련사건 3면>

이날 포럼에서 강대희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의생명산업거점화를 위한 비전 및 지역 의료 혁신을 통한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토의가 진행됐다.

포럼 주요내용으로는 △서울대 지역

의료혁신센터 소개, △디지털병원의 발전방향, △디지털헬스 기반 맞춤형 주민건강관리 시스템,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거점 여건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됐다.

강대희 교수는 "의생명산업 생태계의 기반인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현상과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의료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상생·협력 중심의 지역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전북도에서는 국내 의생명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추가로 참여시켜 국가과제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전북 의생명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화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오늘 총선 D-120일... 입후보예정자 현수막 게시 불가

전북선관위 "선거 영향 미치는 인쇄물 배부·시설물 설치 금지"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가 선거일전 120일인 오늘(12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

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내년 3월 28일~4월 10일)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도당과 도의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

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서 확립을 위해 12일 이후 거리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인쇄물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남원시·전북대학교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

## 폐교 서남대가

#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 다시 태어납니다!